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되돌아보니 2020년 하반기가 벌써 지나갔네요.

들리는 뉴스를 보면서 한국과 전 세계가 맞은 어려움에 대해 날마다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르단 상황 & 사역소식

코로나 발생 이후 전 세계가 맞은 동일한 어려움을 요르단도 겪고 있습니다.

낮은 대모와 높은 실직률 공항의 폐쇄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3월부터 장기간 학교와 지역 센터 등이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문을 닫게 되어서 저희가 섬기는 지역 센터 역시 잠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9월초에 있을 개학을 맞아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가고 있어 추위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개학을 하더라도 높은 실업에 아이들을 센터 유치원에 보낼 수 없어서 센터 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난한 지역을 섬기며 어린이 사역, 여성 사역, 여성 일자리 교육을 담당해온 센터가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니아매 센터장과 함께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며 센터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원 형제는 태권도 센터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한달 전에 다시 태권도 센터에 나가 지도하였는데 1주전부터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서 잠시 휴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만 도시에 계속적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다시 전면 통제를 시작한다고 어제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의료 부족과 시설의 미비로 인해 요르단 정부가 강하게 통제를 하고 싶어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경제 부분이 어려워져 다시 전면 통제 시행 시 대규모 대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소규모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데 어려운 현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함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가정 소식

긴 시간 아이들이 건강하게 집에서 공부도 하고 늦은 저녁 산책을 하면서 감사하게 잘 지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개학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학교와 친구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재 확산으로 다시 문을 닫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기대반 걱정 반으로 차근 차근 개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 학교 상황은 공항 폐쇄로 인해 아직 담당 교사 과목 담당 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학 전까지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중인데 필요한 교사분들이 채워지길 기도중에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 갈수 있도록
2. 지역 센터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고 재정적인 후원이 있을 수 있도록
3. 저희 가정의 재정적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ps. 가상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계좌로 후원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신한은행 5621-29997-68041(사)예수전도단

